

사람은 정보를 먹고산다

유경희

(사)한국복지정보통신협회 부회장

1. 데이터베이스 안에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있는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는 정보를 먹고산다고 말할 수 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십 억의 인구, 개개인이 나름대로의 생활을 위한 정보를 꾸준히 입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막강한 정보 전달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는 생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치 뉴스를 지나치게 많이 전달하고 있어서 짜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만, 정작 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너무 소홀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나 같은 증권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배달되어 오는 신문에 수록된 증권 정보는 잡음에 불과하다. 그래도 증권 정보를 수집하고 인쇄하고 제작하고 배달하여 주는 비용의 일부를 신문 값에 포함해서 내고 있다. 이렇게 적합하지도 못한 정보의 대가 지불도 억울하려니와 그보다 잡음과 같은 정보 때문에 허비되는

시간이 아까워서 후회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아침에 출근할 때 버스나, 지하철이나, 택시나, 자가용이나 등의 교통 편의 선택도 바로 정보에 의하여 순식간에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도 없다.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대처해야 한다. 비록 교통 관련 정보의 방송이 방송국마다 진행하고 있지만 수신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전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정보의 욕구는 시시각각으로 달라진다. 배고플 때는 어디에 무슨 음식이 어떤 조건으로 제공되느냐 하는 정보가 필요하고 이 수요가 충족되었을 때는 다음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게 된다. 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오늘 학교에 가면 무슨 과목으로 어떠한 공부를 하게될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알아야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정해진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다. 학업 그 자체가 정보를 입수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과정을 알려주는 수단

이기도 하다.

가정주부는 생활 용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항상 찾아내고 있다. 날이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시세 변동에 민감하게 대처하여야 필요한 용품을 값싸게 구입할 수가 있다. 필요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입하여 버리는 게으름뱅이 남자들의 습성과 같아서는 가정의 살림을 꾸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와 공공 데이터베이스로 구분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공공 데이터베이스인 경우는 국책 과제로서 해마다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확립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공 데이터베이스와 제로 인하여 개발된 데이터베이스가 별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악의로 해석하는 사람은 가장 이용되지 않을 만한 데이터베이스가 공공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정도로 이용되지 않는다. 사실은 이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분야의 사람은 이용하고

있다. 이 말은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가 그것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가 하는 미심쩍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오히려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의 육성이 더 공평하지 않는가? 즉 매일 매일 사람들이 먹고살 만한 정보를 더 많이 담아두고 이를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2.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정보 유통에 걸림돌은 없는가?

온라인 해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온라인 상에서 필요로 했던 정보를 찾아내고 이것을 그냥 육안으로 보고 기억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태반은 된다. 이것을 프린트해서 쓰기도 하지만 어지간히 번거로운 게 아니다. 어쩌다가 프린트까지 하긴 했지만 영어로 되어 있어서 번역해야 할 때도 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는 더욱이 더 까다롭다.

다시 말하면 생산된 정보(데이터베이스화된 정보)가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걸림돌이 있다. 전자 메일로 보내어도 읽어낼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번역해서 주어야 할지 아닐지도 잘 알 수가 없다.

종이에 프린트해서 주어야 할지 오히려 전자 기억 매체에 담아서 주어야 할 지에 관해서도 사전에 알지 못하면 이상적인 정보 유통이라고 할 수가 없다.

초고속망의 실현을 목전에 두고 데이터베이스의 유형이 점차 디지털 라이브러리(Digital Library)로 모양을 갖추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던 풀 텍스트 정보를 쉽게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아직도 표준화되지 못한 데이터베이스에 관해서는 순조로운 유통을 기대할 수가 없다. 거기다가 네트워크가 표준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을 예상할 수가 있다. 몇 차례나 이미 지적한바가 있었지만 정보검색의 방법마저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도 서둘러서 고쳐져야 할 문제들이다.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는 키워드와 부울 논리를 적용한 검색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안다. 모두가 메뉴 선택 방식에 의한 검색이다. 이걸로서는 정밀 검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인식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아직도 이상적인 키워드 검색 시스템이 국내에서 실용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간혹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다고 선전하는 시스템을 더러 사용하여 봤으나 모두가 터무니없는 방식임을 확인하고 “그것으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다시금 새로운 과제로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 역시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번역 시스템이 도처에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물론 100% 만족할만한 것이 있을 수 없지만 번역에 도움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번역 시스템은 국제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국내에만이라도 순조로운 유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더욱 승화시켜서 더욱더 고부가가치적이면서 정보 내용이 더욱 충실하고 초고속망을 적용시키면서 이상적인 정보 유통을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DC**

